

6월 + 9월 + 예시 문항으로 예측하는 2021 수능 비문학 출제 방향

1. 신유형

우선 신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 (나) 신유형 출제 방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정리한 부분만 보셔도 돼요.)

6월

‘과거제’를 소재로 한 16~21번 문항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를 다룬 (가) 글과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을 다룬 (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며 읽고, 독서의 결과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9월

‘예술의 본질’을 소재로 한 20~25 번 문항은 ‘예술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가) 글과 ‘예술 작품의 비평 방법’을 다룬 (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글을 대조하며 읽고, 독서의 결과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예시 문항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가), (나)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분석하며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신유형은 동일한 화제를 다루는 서로 다른 글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내용은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하는 성취기준 중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① 서로 다른 관점과 ②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③ 다양한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다.

라는 항목을 염두에 두고 출제된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출제된 6월, 9월, 예시 문항은 이 성취기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시 문항이 가장 이 성취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월 모의고사의 경우는 과거제라는 하나의 소재에 ‘찬성 vs 반대’의 대립구도가 각각 (가), (나)에 중점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9월 모의고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술의 본질이라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하나는 예술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이론들을 나열하였고, 하나는 예술 비평이론을 나열하며 그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 글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용적으로 연결고리는 흐릿하게나마 존재하고, 6평에 비해 선명한 대립 구도, 즉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부분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예시 문항의 경우는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일단, 음악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 ‘감정, 내면 vs 형식’과 같은 대립 구도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서는 통시적 흐름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음악의 정서적 측면까지 다루어 (가)와 내용 상 중복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서술 방식의 차이를 통해 서로 다른 형식에 대한 부분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취기준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수능에 이 유형이 등장할 때는 지문 구성은 예시 문항, 문제 구성은 예시 문항과 6월 모의고사 처럼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9월 모의고사처럼 출제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성취기준을 다시 언급하자면,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와 예시 문항에는 (가)와 (나)의 내용을 엮어서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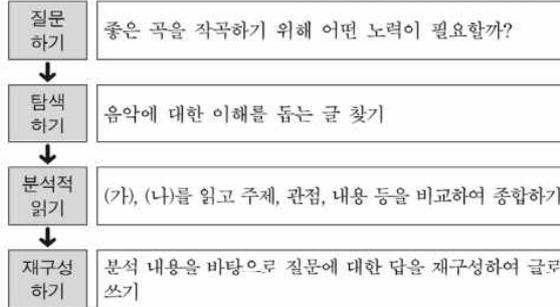
6월 모의고사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예시 문항

21.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③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 ④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 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반면 9월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와 (나)를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항이 있지만, 그 역시 두 지문의 내용을 엮어서 물어보는 선지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 내용 따로, (나) 내용 따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모의고사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작품 정보 요약

- 작품 제목 : 「그리움」
- 팸플릿의 설명
 -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임.
 -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공평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
-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 비평문 작성을 위한 착안점

-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①
-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②
-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③
-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④
-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⑤

①번과 ②번 선지는 (가)에 제시된 인물의 입장을, ③~⑤번 선지는 (나)에 제시된 인물의 입장을 물어볼 뿐 두 지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등 ‘통합적으로’ 읽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문 구성은 복잡하고 단순한 나열식으로 등장하고 단편적인 지문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된 9월 모의고사보다는, 두 지문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엮여있고, 통합적 물음을 던지는 다른 문제들이 더 공부하기에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문항을 풀어보지 않은 분은 꼭!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2. 추론형 지문

6월 모의고사에서는 ICT, 9월 모의고사에서는 행정 규제 지문이 추론형 지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문 구성은 ICT에 가깝게 그러나 난이도는 높게, 문항 출제는 둘 다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6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되 9월 모의고사의 27번 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항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관련 성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문 구성과 문항의 출제 근거를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이 성취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는 출제 방향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CT 지문에서 로열티를 제반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ICT 산업에 주도적인 국가들은 타국에서 유인 비용이 높은 상황을 선호할 것이라는 내용 등

행정 규제 지문에서 행정규칙이 위임명령에 비해 첨단 기술의 관련성이 높을 때 대응하기 유리한 이유, 위임명령이 제한을 넘는 것이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내용 등

이러한 부분들은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포인트들이죠.

즉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예측하여’, ‘추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들은 소위 말하는 ‘리트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그 ‘리트스러움’은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추론’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등장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이러한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항이 수능에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지문 구성 또한, 피램T의 용어를 빌리자면 ‘불친절한 서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추론을 요구하려면 그런 연결고리들을 삭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단서를 주고 스스로 빈 부분을 ‘추론’으로 채우도록 만들어야 하니까요.

또 그 형태에 있어서는 9월 모의고사의 1~2문단 서술 방식이 과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지문 구성과 출제 방식은 6평에 가깝겠지만, 9월 모의고사의 행정 규제 지문 중 27번과 같은 문항은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까지가 제가 생각한 수능 출제 포인트들입니다.

요약하자면

1. 신유형은 예시문항, 6평에 가깝게 출제될 것이니 두 지문은 꼭 풀어보자.
2. 추론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농후하다. 역시나 6평과 비슷한 지문 구조로 출제되겠지만 9평의 27번과 유사한 형태의 추론 문제는 공부해보자.